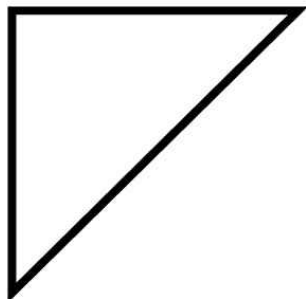


—
위클리
글로벌
2019.4.15.

Weekly Global

20

19



목 차

2019. 4. 15. 마케팅지원팀

구 분	제 목
중국	- (정책) 광전총국, <아동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 발표 - (영화) 청명절 연휴기간 중국 누적 박스오피스 6억 9,400만 위안
중국 심천	- 제 31회 광저우 토이페어(广州玩具展) 개최(4월8일~4월11일) - 광저우 운호e-스포츠센터(云湖电竞中心) 및 광저우 e-스포츠박물관(广州电竞博物馆) 개관식 개최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개최 - 인도네시아 패션위크 2019 개최
중동	- 미국극장체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진출 관심 여전 - 두바이와 카이로의 합작영화 개봉 앞뒤 화제 - MENA 창업기업 및 디지털화 현황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9. 4.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 비즈니스센터

□ [정책] 광전총국, <아동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 발표

- 4월 3일, 국가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아동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未成年人节目管理规定)>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이 메인 참여자로 진행되거나 아동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연예인 자녀나 아동 연예인에 대한 홍보를 제한하고 방송 전·후 광고(중간광고 포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이 밖에도, 출연자의 의상이나 방송 주제·출연자들의 언행·방송 시간 등 아동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짐. 광전총국은 작년 8월 해당 규정에 대한 초고를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2월 14일 완성본이 국가광전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 본 규정은 4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될 예정임.

□ [영화] 청명절 연휴기간 중국 누적 박스오피스 6억 9,400만 위안

- 청명절 연휴기간인 4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국 박스오피스는 6억 9,400만 위안(약 1,175억 원)으로 전년 기록인 6억 8,700만 위안(약 1,163억 원)보다 소폭 증가함. 또, 동기간 판매된 영화티켓 수는 총 1,991만 8,200 여 장으로 작년보다 3만 3,100 여 장 감소하였고, 영화 상영회수는 총 109만 1,800 여 회로 작년보다 91만 3,300 여 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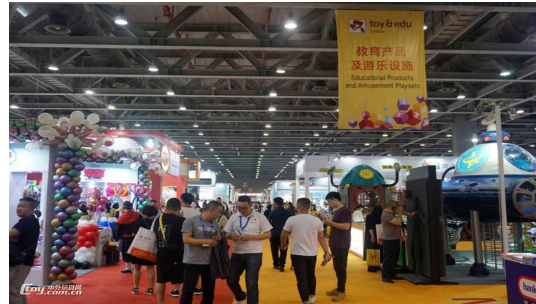
2019년 청명절 연휴기간 중국 박스오피스 TOP 10편						
순위	작품명	연휴기간 박스오피스(만)	개봉일	총 박스오피스	상영 점유율	티켓 판매가 (중국 위안)
1	P STORM 4(反贪风暴4)	26,518.97	2019.04.04	35,044.25	29.66%	35
2	샤잠!(雷霆沙赞!)	19,777.56	2019.04.05	20,401.92	29.95%	37
3	Andhadhun(调音师)	7,112.17	2019.04.03	9,196.65	9.34%	32
4	Song of Youth(老师·好)	3,850.53	2019.03.22	30,338.2	5.54%	34
5	The Shadow Play(风中有朵雨做的云)	3,470.18	2019.04.04	5,121.56	7.68%	36
6	덤보(小飞象)	3,378.75	2019.03.29	12,539.11	4.52%	35
7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比悲伤更悲伤的故事)	1,085.83	2019.03.14	94,247.21	2.94%	28
8	폭풍의 시간(海市蜃楼)	850.34	2019.03.28	10,255.84	1.45%	34
9	Frog Prince Adventures(青蛙王子历险记)	666.70	2019.04.05	666.7	3.2%	31
10	보헤미안 랩소디(波西米亚狂想曲)	509.77	2019.03.22	9,002.99	0.5%	39

중국[심천]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9. 4.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 비즈니스센터

□ 제 31회 광저우 토이페어(广州玩具展) 개최

- 4월 8일 부터 4월 10일, 제31회 광저우 국제 장난감&교구제품 전시회 및 제10회 광저우 국제 유모용품 전시회가 광저우 PWTC Expo(广州保利世贸博览馆)에서 개최됨.
- 이번 광저우토이페어에 참석한 관객들은 59,376명으로 전년 대비 5% 증가 하였음. 이 가운데 해외 바이어는 3,079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전시 면적 또한 23% 대폭 증가 10만㎡에 달해 규모가 작년에 비해 한층 더 확대됨.
- 이번 제31회 광저우 토이페어 핫이슈는 ‘교구 제품’ 으로 유아의 지능발달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제작하는 완구업체가 다수 참가함.
- 또한 인공지능 및 AR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유아교육 완구업체가 약 80개 정도 전시회에 참가하여 관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능을 제공함.



* 사진출처 : 바이두(百度)

□ **광저우 운호e-스포츠센터(云湖电竞中心) 및 광저우 e-스포츠박물관 [广州电竞博物馆] 개관식 개최**

- 3월29일, 광저우 백운구(白云区) 백운호거리(白云湖街)에서 운호e-스포츠센터 개관식이 개최되었음. 운호e-스포츠센터는 정부 지원과 광저우시e-스포츠 산업협회(广州市电竞行业协会) 등의 협력을 받아 e-스포츠 산업을 추진 예정 중이며, 중국 내 최대 e-스포츠산업타운(电竞产业城)을 설립 예정임. 또한 공동으로 백운구에 디지털 문화 산업을 발전 추진 예정중 이라고 발표함.
- 운호e-스포츠센터 부지면적은 약 5,000㎡, 건축면적은 약 15,000㎡이며, e-스포츠 사용자의 수요를 수렴하여 전문적인 e-스포츠 경기장을 갖출 예정임. e-스포츠대전구역(竞技对战区), 프로대회 경기장구역, 독립방송구역, 프로e-스포츠훈련장 등의 핵심 구역을 설립하였음. 또한 대형 대회 운영, 범엔터테인먼트(泛娱乐), e-스포츠 콘텐츠 생산, 운호 클럽, e-스포츠 아티스트 등을 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향후 운호e-스포츠센터는 실력과 영향력을 갖춘 전문화된 e-스포츠센터로 구축할 예정임.
- e-스포츠 정보 제공 및 풍부한 문화콘텐츠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최초 광저우 e-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하였음. 광저우 e-스포츠박물관은 e-스포츠산업을 핵심 콘텐츠로 하여, 정보를 제공 각종 종류의 e-스포츠 설비 및 제품을 전시하고 있음.



* 사진출처 : 바이두(百度)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9. 4.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개최

- 2019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카르타 이스포라 스나얀(Istora Senayan)에서 인도네시아 e스포츠 프리미어 리그 조직위원회(IESPL) 주최,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BEKRAF),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대통령 부속실 협업 가운데 <인도네시아 e스포츠 프리미어 리그(Indonesia E-Sports Premier League, IESPL)>가 개최됨
- 이번 대회의 종목은 게임 <모바일 레전드: 뱅뱅(Mobile Legends: Bang Bang)>으로, 약 3,600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덴파사르(Denpasar), 수라바야(Surabaya), 솔로(Solo), 팰렘방(Palembang), 브카시(Bekasi), 마카사르(Makassar), 뽀띠아낙(Pontianak), 마나도(Manado) 등 8개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총 16개 팀이 참가함
- 이번 대회는 프로페셔널 레벨 및 지역 레벨 등 총 2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행되어 각 카테고리별 선발팀은 다음과 같음

프로페셔널 레벨	Onic Esports, Aerowolf, PSG.RRQ, AlterEgo, Louvre Juggernaut, Capcorn, SFI Critical, Evo Esports
지역 레벨	Professional Esports(팰렘방), ROC Esports(발리), Revo(수라바야), Starlest(마카사르), Star8(마나도), Nazone Gaming(솔로), Cupu(뽀띠아낙), Humble(브카시)

- 최종 우승팀은 오닉 이스포츠(Onic Esports)팀으로 상금 4억 루피아(약 3,200만원), 준우승팀은 루브레 자그르넛(Louvre Juggernaut)팀으로 상금 2억 루피아(약 1,600만원), 준준우승팀은 PSG.RRQ팀으로 상금 1억 루피아(약 8천만원)를 지급받음



*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 인도네시아 패션위크 2019 개최

- 2019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akarta Convention Center)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패션쇼인 <인도네시아 패션 위크 2019 (Indonesia Fashion Week 2019)>가 개최됨
- 인도네시아 패션 사업가 디자인 협회(Asosiasi Perancang dan Pengusaha Mode Indonesia, APPMI) 주최 하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약 120여명의 디자이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패션쇼 외에도 패션모델 선발대회, 영패션디자이너 선발대회, 토크쇼, 전시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됨
- 이땅 유나즈(Itang Yunasz), 이반 구나완(Ivan Gunawan), 리아 미란다(Ria Miranda), 디안 빨랑이(Dian Pelangi), 바를리 아스마라(Barli Asmara), 자스키아 승까르(Zaskia Sungkar), 뽀뽀 다르소노(Poppy Dharsono), 지미 페이페이(Jimmy Fei Fei), 아그너스 부디수르야(Agnes Budhisurya) 등 현지 유명 디자이너들의 브랜드 패션쇼가 개최됨
- 본 행사 폐막식때 인도네시아 패션위크 조직위원회 뽀뽀 다르소노(Poppy Dharsono)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참관객 수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약 126,000명으로, 상담계약액은 무려 891억 루피아(약 71.3억 원)에 달한다.” 고 밝힘
- 한편, 2018년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 10호(패션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BEKRAF)는 2016년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분야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 922조 루피아(약 73.8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패션 분야는 18.01%에 이르러 전체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패션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영역은 의류 분야로 전체의 78%을 차지함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중동 콘텐츠 위클리 글로벌

2019. 4. 1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UAE 마케터

□ 미국극장체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진출 관심 여전

- 워싱턴포스트 기자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 이슈로 할리우드(Hollywood)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소 세 개 미국극장체인이 여전히 사우디 극장 건립을 추진 중임
- 전미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 존 피티안(John Fithian) 의장은 사우디에 세 개의 복합영화관 건립이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사우디 당국관계자와 라이선스 관련 문제 해결을 논의 중이라 밝힘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시네마콘(3.30~4.2)에 참가한 피티안 의장은 자말 카슈끄지 암살사건에 대해 비극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사우디에서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며 비즈니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함
- 불과 몇 주 전 엔터테인먼트 기업 엔데버(Endeavor)는 이번 암살사건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엔터테인먼트 투자펀드에서 4억 달러(USD)를 철회한 바 있음. 이 펀드는 콘텐츠 제작자 및 브랜드를 사우디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것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미디어 이슈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화정책은 지속되고 있음. 사우디 첫 문화부 장관(Prince Badr Bin Abdullah Bin Farhan)은 ‘Our Culture, Our Identity’ 라는 문화개방 및 예술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의 일환으로 홍해국제영화제(Red Sea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사우디에서 최초로 개최될 예정임
- 한편, 시네마콘에 참가한 CJ CGV는 사우디아라비아 극장사업자 엠파이어와 손잡고 2023년까지 10개 4DX관을 도입하기로 합의함

□ 두바이와 카이로의 합작영화 개봉 앞뒤 화제

- 두바이 제작사 프론트 로우(Front Row)와 카이로의 필름 클리닉(Film Clinic)의 합작으로 제작된 첫 번째 고예산 영화 <Luxor>가 촬영 완료로 개봉을 앞두고 있어 화제임
- 영국감독 제이나 듀라(Zeina Durra)가 연출하고 영국 배우 안드레아 라이즈보로우(Andrea Riseborough), 프랑스-레바논 배우 카림 살레(Karim Saleh)가 출연한 이 영화는 최근 이집트에서 진행된 촬영을 완료했음
- 두 기업은 차기 합작영화도 공개했는데, 이탈리아 영화 <Perfect Strangers (완벽한 타인)>의 아랍어 리메이크 작품임. 이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2016년에 개봉하여 많은 수익(1,600만 달러)을 올린 바 있음. 이미 프랑스, 멕시코, 한국, 중국, 헝가리 그리고 스페인 등에서 리메이크됐으며, 아랍어 리메이크 영화가 올해 말부터 제작될 예정임
- 프론트 로우와 필름 클리닉은 영화 배급계약의 성사와 함께 방송관련 계약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방송기업들은 흥행에 성공하거나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 방송업계의 투자금이 영화 제작에 유입되면 보다 많은 MENA 지역의 영화 투자자, 제작자 그리고 독립 영화 관계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MENA 창업기업 및 디지털화 현황

- MENA 지역은 디지털 소비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창업의 잠재성이 매우 크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디지털 연결(Digitally Connected)’ 이 잘 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힘
- 전체인구의 88%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며, 94%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명당 평균 7개의 SNS 계정을 소유하며, 세계 7위의 SNS 사용률을 기록
-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주요 디지털 부문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창업자 정신도 아직 잠재성에 머무르고 있음. MENA 지역 중소기업의 8%가 온라인 분야에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미국은 10배 높음), 소매매출액의 1.5%만이 온라인을 통해 발생(미국은 5배 높음)
- 디지털 맥킨지(Digital McKinsey)의 조사에 따르면 중동은 디지털 잠재력의 8%만이 실현되고 있는 반면 서유럽은 15%, 미국은 18%의 실현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함
- 그러나 MENA 지역은 S-커브의 시작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공적인

스타트업과 투자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음악에서 디지털 물류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며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비한 주소체계 극복을 위해 GPS 기술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UAE 기업 Fetchr와 지역의 미성숙한 핀테크를 극복하기 위해 결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집트 기업 Fawy가 있음
- 2015-2017년 동안 투자자는 30% 늘어났고, 투자액은 100% 증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펀드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2015, 2016년에 14개의 새로운 펀드가 시장에 진입
- VC 투자나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등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큰 상황이며, 최근 이집트의 핀테크 팩토리(Fintech Factory), UAE의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 그리고 쿠웨이트의 국부펀드(National Fun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등이 설립된 바 있음
- 이러한 지원을 통해 MENA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창업가들은 변화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이고 대담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음

●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2070 / cmkim@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상현 센터장 : +86-10-6501-9971 / willbe@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심천) 남궁영준 센터장 : +86-755-2692-77971 / pinoky14@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황선혜 센터장 : +81-3-5363-4511 / hwang216@kocca.kr
- 유럽 비즈니스센터(런던) 최윤수 센터장 : +44-20-7016-3333 / yschoi@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과장 : +971-2-491-7227 / swpark@kocca.kr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